전남 북부 불교문화유산 '한자리에'


백양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

불교중앙박물관 '백암산 백양사'展
9월 8일~12월 10일 특별전 개최
백양사 본말사 성보 132점 전시
명부전 지장보살상, 발원문 첫 공개

김내영 기자 rlasodnd0994@naver.com

전남 북부 지역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과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는 9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백암산 백양사'를 개최한다. 특별전에는 백양사가 보존 전승해 온 국보급 성보를 중심으로 전남 북부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용흥사, 불갑사, 심향사 등 백양사 말사의 성보 총 92건, 132점이 전시된다.

제1전시실에서는 백양사의 창건과 역사가 담긴 주요 성보를 선보인다. 1650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요대사탑'과 극락보전에 모셔진 '목조아미타불좌상', '아미타회상도'는 백양사 소장 국가지정문화재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운상의 어려움으로 이번 특별전에는 전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에 조명되지 않았던 '팔상도', 목공예가 불화와 결합된 '문', 국내 유일 칠원성군상인 '소조칠원성군상' 등 새로운 불교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특히 최근 발견돼 조성연대가 확인된 1653년 작품인 '명부전 지장보살좌상'과 발원문인 '조성필공기'가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고려시대 중창주인 '각진 국사 진영'을 비롯해 황응 탄영 스님이 필사하고 금해 관영 스님이 소장했던 '서장기' 등 백양사의 고승들과 관련된 성보도 눈길을 끈다.

희소성이 있어 그 가치를 더욱 크게 평가받는다는 건칠부처님도 친견할 수 있다. 제2전시실에는 '전남 북부 불교문화'를 주제로 '나주 불회사 건칠아미타불좌상(보물)'과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불좌상(보물)',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유형문화재)' 등 3점을 한 공간에서 선보인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괘불인 '나주 죽림사 괘불(보물)'과 무염 스님의 초기 작품인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중 '목조약사불좌상'도 전시된다.

혜안의 선지식인 만암 스님과 참사람인 서옹 스님을 주제로 근대 백양사의 역사와 고불총림의 의미를 조명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제3전시실에서는 '근대 백양사의 중창과 고불총림'을 주제로 만암 스님 소장 '태극기'와 '서옹 스님의 가사', '참사람 운동 육필 원고' 등 생전 유품이 공개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백양사 본·말사 성보를 재조명하고, 가치 높은 성보를 국보·보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백양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과 나주 죽림사 괘불,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등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전남 북부지역의 불교문화를 대중들에게 선보여 불교와 종단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일반 공개에 앞서 9월 7일 오후 3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포교원장 범해,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봉은사 주지 원명, 상도선원 회주 미산,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특별전에서 펼쳐지는 백양사 성보들을 통해 불자들과 시민들이 천년 넘게 전해져온 우리 민족의 높은 문화 수준과 불교미술의 세계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죽림사 세존 괘불탱


서옹 스님의 가사

사찰 수문장 '사천왕상',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9월 7일 지정예고
화엄사 등 8곳 천왕상 대상



강원도에 현전하는 유일한 사천왕상인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동방지국천왕·남방증장천왕(사진 왼쪽)·서방광목천왕·북방다문천왕(사진 오른쪽).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사찰 입구 천왕문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수문장인 '사천왕상'이 있다. 17세기에 조성된 사천왕상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등 17세기에 조성된 사천왕상 8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사천왕상은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등 총 3건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여 건이 전하는데,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조성되다가 이후 불화 등의 형태로 그려졌다. 전란 이후 사찰의 재건과정에서 불교의 부흥이라는 범불교적 역사적 소명을 담아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해당 시기의 사천왕상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과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은 전란 이후 벽암 각성과 계특 대사에 의해 사찰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조성한 것이다. 두 사천왕상 모두 의자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제작된 의좌형 사천왕상이며, 전체적으로 중량감 넘치는 조형 감각, 사각형의 주름진 큰 얼굴, 넓고 두텁게 표현된 콧방울 등은 동일 지역 내 17세기 전반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제작한 조각승 응원과 그 제자 인균으로 이어지는 유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여진다. 두 사천왕상 모두 발밑에 악귀 등 생령이 없는 게 특징이다.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역시 전란 이후 벽암 각성에 의해 주요 전각이 순차적으로 중창되는 과정에서 조성된 것이다. 양식적 특징과 나무의 연륜연대분석(나이테연대분석) 결과 등으로 볼 때 17세기 중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현전하는 사천왕상 중 매우 드문 입상이며, 5.7m에 이르는 최대 크기의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조형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조선 후기 사천왕상으로는 드물게 발원문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1665년 완주 송광사를 근거로 활동하던 단응과 탁밀, 경원, 사원, 법청 등 그의 유파 조각승을 초청해 한 것임이 밝혀졌다.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은 17세기에 제작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목조사천왕상으로, 같은 전남 지역의 화엄사, 흥국사 등의 사천왕상과는 전혀 다른 계통의 조각 양식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다.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은 원래 전북 무장 소요산 연기사에서 17세기 후반 제작한 것으로, 연기사가 폐사되면서 설두 선사가 1876년 영광 불갑사로 이안했다. 여러 편의 나무 조각을 접목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동시에 머리카락이나 세부장식, 양감이 필요한 부분은 흙으로 정교하게 제작하여 소조상에서 목조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미 보물로 지정된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중 사천왕상에서 나온 복장전적을 사천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당해 목록에서 해제하고 새롭게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및 복장전적'이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했다.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강원도에 현전하는 유일한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희소하며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조각사적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사적기를 통해 1676년 승려 여담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 17세기 후반 기준작이기도 하다.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동방지국천왕의 내부에 남겨진 묵서를 통해 1683년 조성됐음이 명확하게 확인된 작품으로, 사천왕상 편년 연구에 기준이 된다. 양식적 특징과 단응 유파가 제작한 영산전(靈山殿) 과거칠불 등을 볼 때 이 사천왕상은 단응 유파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사천왕상은 중요한 조각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 노출돼 보존관리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일괄 지정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미술사연구소 박물관 대학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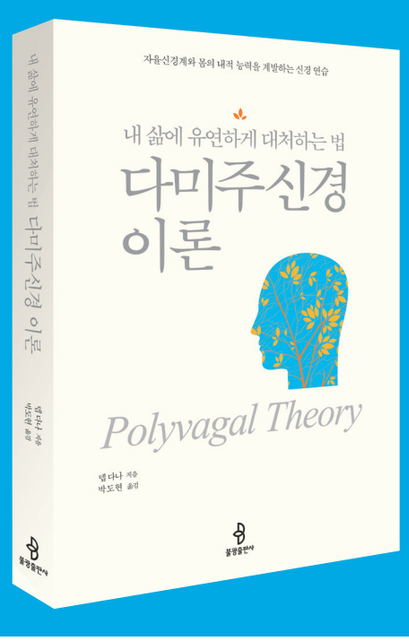
10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제56회 박물관 대학 2학기 강좌를 10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10차례 진행한다. 답사를 제외한 강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길 4(가회동 30-10)에 있는 한국미술사연구소이다. 수강료는 19만 원(학생은 15만 원)이다. (02) 3673-3426 신중일 기자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제4회 공개사례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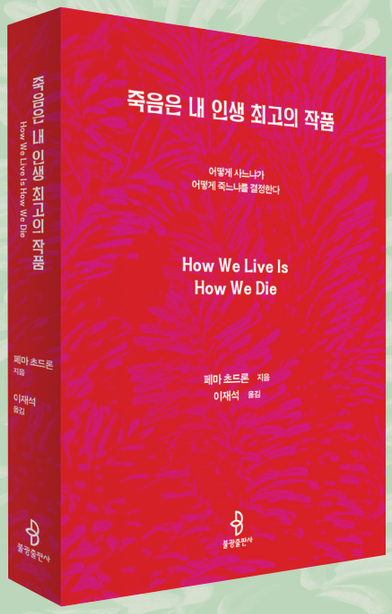
9월 22일 원주 구룡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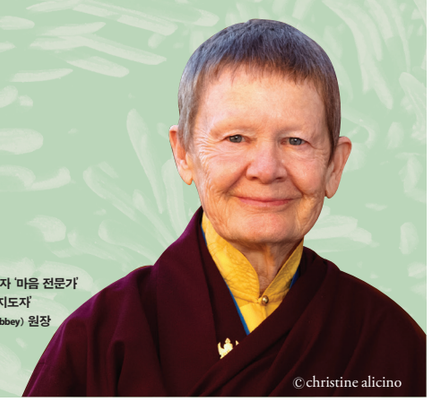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손강숙)는 9월 22일 오후 1시 강원도 원주 구룡사에서 '제4회 공개사례 발표회 및 수퍼비전'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총지사 주지 동진 스님과 오세천 ㈜행복나눔125 경영컨설팅 대표가 상암사례를 발표한다. 수퍼비전과 상담시연은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이 맡는다. 신중일 기자

우리 안에 고통을 이겨내는 타고난 힘이 있다!
내 몸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놀라운 신경과학,
'다미주신경 이론'의 모든 것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최선의 방식으로 삶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 주는 신경 연습!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신경과학 신경심리학 분야 1위
내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다미주신경 이론
뎁 다나 지음, 박도현 옮김
304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인생의 태도로 죽음의 차이를 만드는 기적 같은 지혜!
죽음은 내 인생 최고의 작품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


페마 초드론 지음 · 이재석 옮김 | 336쪽 | 20,000원
달라이 라마와 함께 영적 스승으로 존경받는 페마 초드론이
티베트불교에서 발견한 삶과 죽음의 찬가(讚歌)이자,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페마 초드론
티베트불교 금강승 수행을 완성한 최초의 미국인이자 '마음 전문가'
'왓킨스 북'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북미 지역 첫 티베트불교 도량인 감포 사원(Gampo Abbey) 원장
© christine alicino